

지칭의 대용어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들

이 병 덕

【국문요약】 브랜덤은 지칭의 대용어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칭은 언어적인 것들 사이의 대용어적 의존관계이지 결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아니다. 또한 ‘지칭한다’는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형성 조작어이다. 그런데 최근 보베는 이 이론에 대해 세 가지 비판들을 제기한다. 첫째, 대용어 이론은 일상적 기술어구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반복 가능성 조건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들이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 둘째, ‘그’와 같은 대명사를 포함한 문장과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포함한 문장은 양상적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들은 의미론적으로 전형적인 대용어들과 다르다. 셋째, 대용어 이론에 따르면 ‘a’ 형태의 표현들과 이에 대응하는 “a”에 의해 지칭되는 것’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대용어, 선행어 등과 같은 개념들 대신 동등함, 대체가능성 등과 같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론적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어 이론은 설명적으로 공허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보베의 비판들이 지칭의 대용어 이론에 큰 문젯거리가 아님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지칭의 대용어 이론이 ‘지칭한다’에 관해 옳은 통찰을 주는 유망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주요어】 지칭의 대용어 이론, 대명사형성 조작어,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 브랜덤, 보베

1. 지칭의 대용어 이론

브랜덤(1994, 2005b)은 이른바 ‘지칭의 대용어 이론’(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을 주장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칭의 대용어 이론을 소개하고, 최근 아비드 보베(Båve 2009)가 제기한 세 가지 비판들에 대해 답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칭의 대용어 이론이 ‘지칭한다’(refers)의 의미에 관해 옳은 방향의 통찰을 주는 유망한 이론임을 주장할 것이다.

먼저 어떤 화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 (1)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를 지칭한다. (‘Everest’ refers to Everest.)

지칭의 표상적 견해에 따르면 ‘에베레스트’와 같은 고유명사는 세계 속의 한 특정한 대상을 표상(또는 지칭)하고, 또한 (1)과 같은 문장에 포함된 ‘지칭한다’는 한 언어표현(즉 ‘에베레스트’)과 한 비언어적 대상(즉 한 특정한 산)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실질적 관계를 표현한다. 그런데 한 언어표현과 한 비언어적 대상 사이에 과연 이와 같은 실질적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기 매우 어렵다.

우선 콰인(Quine 1960)의 ‘지칭의 불가해성 논제’(the inscrutability thesis of reference)에 따르면 한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모든 행동적 증거들이 제시돼도 결정할 수 없다. 이 논제를 이해하기 위해 콰인의 이른바 ‘가바가이’ 논증(the ‘gavagai’ argument)을 살펴보자. S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적이 없었던 한 부족의 언어를 최초로 번역해야 하는 원초적 번역자라고 가정해보자. 따라서 S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관찰할 수 있는 원주민들의 언어

행동들뿐이다. 이제 원주민들이 ‘가바가이’라고 소리를 내는 경우에 항상 근처에 토끼가 있었다는 사실이 관찰됐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S는 ‘가바가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번역 매뉴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i) 한 토끼가 있다.
- (ii) 분리될 수 없는 토끼의 한 부분이 있다.
- (iii) 한 토끼를 구성하는 사차원체의 한 시간단면(a time slice)이 있다.
- (iv) 토끼성(rabbithood)의 한 사례가 있다.

‘가바가이’의 지시체는 각 번역 매뉴얼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 증거들은 위 번역 매뉴얼들과 모두 양립한다.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 증거들에 호소하여 위 번역 매뉴얼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콰인은 한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모든 행동적 증거들이 제시된다 해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 언어표현과 한 비언어적 대상 사이에 성립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너무 많은 인과관계들이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중국’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과 중국이라는 광활한 대륙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과관계들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인과관계들 중에서 ‘중국’이라는 언어표현이 중국이라는 광활한 대륙을 한 특정 대상으로 지칭하게끔 해주는 특정한 인과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브랜덤(1994, p. 325)은 이 물음의 답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따라서 그는 지칭을 한 언어표현과 한 비언어적 대상 사이에 성립하는 실질적 관계(substantial word-world relations)

로 설명하는 대신, 대용어적 단어-단어 관계(anaphoric word-word relations)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용어적 단어-단어 관계는 무엇인가? 다음 예를 살펴 보자.

- (2) 메리가 정각에 떠나길 원한다면, 그녀는 지금 떠나야 한다.
(If *Mary* wants to leave on time, *she* should leave now.)

위 문장의 후건에 나오는 ‘그녀’(she)는 전건에 나오는 고유명사 ‘메리’(Mary) 대신 사용되는 대명사(pronoun)이다. 다시 말해 (2)에서 ‘메리’는 대용어적 선행어(the anaphoric antecedent)이고, ‘그녀’는 이 선행어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어(anaphor)이다. 대용어는 선행어 대신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선행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것의 내용은 선행어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그녀’는 선행어 ‘메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어 ‘메리’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대상인 메리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¹⁾

그런데 위와 같은 대용어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 용법은 (2)의 경우처럼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게으른 용법’(the lazy use)이다. 이런 경우 ‘그녀’ 대신에 원래 표현인 ‘메리’를 반복해 사용해도 주장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 다른 경우는 ‘양화적 용법’(the quantificational use)이다.

- (3) 임의의 양수는 그것이 짝수이면 그것에 1을 더할 경우에 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Any positive number is such that if *it* is even, then adding 1 to *it* yields an odd number.)

1) Cf. Grover, Camp & Belnap 1975, p. 84; Brandom 2005b, p. 265.

(3)에 포함된 대명사 ‘그것’(it)은 그 어떤 양수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있다. 즉 ‘그것’의 선행어는 임의의 양수이다. 따라서 이 대명사는 무한히 많은 선행어들의 대응어이다. 이런 이유에서 양화적 용법의 경우엔 ‘그것’과 같은 대응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 대응어를 그것의 선행어에 의해 대체했을 때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명사의 위와 같은 용법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칭의 경우를 살펴보자. 조(Joe)가 짐(Jim)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보자.

- (4) 정비공 빈클리가 내 차를 고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머저리가 밸브를 잘못 맞춰놨거든.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let the mechanic Binkley work on my car. That airhead misadjusted the valves.)

이후에 짐이 조가 사용한 이름 ‘빈클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가 그를 ‘그 머저리’로 불렀다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5) 자동차 수리를 할 때 ‘그 머저리’라고 조가 지칭한 정비공한테 절대 가지마. (For car repair, don't go to the mechanic Joe referred to as ‘that airhead’.)

브랜덤(1994, p. 305; 2005b, pp. 265-266)에 따르면 이 담론에서 단칭어 “‘그 머저리’라고 조가 지칭한 정비공’이란 기술어구는 조가 사용한 원래 표현인 ‘그 머저리’를 대응어적 선행어로 갖는,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명사(lexically complex pronoun)이다. 브랜덤은

이처럼 대용어로 사용되는 기술어구를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anaphorically indirect definite description)라고 부른다. 대용어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선행어가 시간, 장소, 또는 화자의 주의력의 차원에서 충분히 가까운 경우, 우리는 ‘그’, ‘그녀’, ‘그것’과 같이 어휘적으로 단순한 대명사(lexically simple pronoun)를 대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용어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선행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선행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브랜덤에 따르면 ‘지칭한다’는 표현은 이와 같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형성 조작어’(a pronoun-forming operator)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명사형성 조작어를 이용해 우리는 ‘그 머저리’와 같은 선행어와 “‘그 머저리’라고 조가 지칭한 정비공’과 같은 후행어 사이에 성립하는 대용어적 의존(anaphoric dependence)이라는 단어-단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칭의 대용어 이론에 의하면 지칭은 언어적인 것들 사이의 대용어적 의존관계이지 결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대상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지칭한다’가 위와 같은 간접 기술어구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문장들이 있다.

- (6) ‘마크 트웨인’은 마크 트웨인을 지칭한다. (‘Mark Twain’ refers to Mark Twain.)
- (7) ‘현재의 프랑스 왕’은 지칭하지 않는다. (‘The present King of France’ does not refer.)
- (8) 그의 담론 속에서 그 화자는 나폴레옹을 지칭했다. (During his talk the speaker referred to Napoleon.)
- (9) 그 화자는 첩보 커뮤니티의 그림자 같은 인물들에 관해 말했

다. (The speaker talked about shadowy figures from the intelligence community.)

그렇지만 브랜덤(1994, pp. 316-322)에 따르면 위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포함하는 기본형으로 변환될 수 있다.

- (6) ‘마크 트웨인’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다. (The one referred to as ‘Mark Twain’ is Mark Twain.)
- (7) ‘현재의 프랑스 왕’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The one referred to as ‘The present King of France’ does not exist.)²⁾
- (8) 그의 담론 속에서 어떤 용어의 사례 t 가 있고, t 에 의해 지칭된 것은 나폴레옹이다. (There is some term tokening t in the speaker's discourse such that the item referred to by t is Napoleon.)
- (9) 용어의 사례들 t 와 t'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의 사례들)이 있고, 그 화자가 t 와 t' 이라고 지칭한 것들은 첩보 커뮤니티의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다. (There were tokenings t , t' (and perhaps more) such that the items referred to by the speaker as t and t' are shadowy figures from the intelligence community.)

그리고 (6)에서 간접 기술어구 “‘마크 트웨인’라고 지칭된 사람’

2) 브랜덤에 따르면 우리는 (7)을 일상적 기술어구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부정존재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프랑스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resent King of France does not exist.)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존재진술을 러셀식의 기술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Cf. Brandom 2005b, p. 273.

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선행어를 언급(mention)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름의 사례 ‘마크 트웨인’은 여기서 사용(use)된다. 따라서 (6)과 같은 문장에서 언급된 이름을 포함하는 간접 기술어구는 언급된 이름을 사용된 이름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참이다’가 그런 것처럼 ‘지칭한다’는 대용어적 탈인용 조작어(an anaphoric disquotation operator)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칭의 대용어 이론은 대상언어와 메타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10) A: 람세스 II세는 탕구르 때문에 죽었다. (Ramses II died of Tangur.)

(11) B: A가 ‘탕구르’이라고 지칭한 것은 장티푸스이다. (What A referred to as ‘Tangur’ is typhoid fever.)

이집트의 어떤 고대 유적지에서 ‘람세스 II세는 탕구르 때문에 죽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는 석판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또한 이 문구는 고대 이집트인 A에 의해 새겨진 것이라고 하자. 더 나아가 그 석판에는 탕구르의 증상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현대 의학자 B의 판단에 따르면 탕구르의 증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부르는 것의 증상들과 동일하다고 하자. 이런 경우 B는 (11)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A가 “탕구르”라고 지칭한 것’이란 간접 기술어구는 A가 사용한 표현인 ‘탕구르’의 대용어이다. 그리고 이 간접 기술어구에 포함된 ‘지칭한다’라는 표현은 ‘A가 “탕구르”라고 지칭한 것’이란 대용어를 형성하기 위한 대명사형성 조작어이다. 이와 같은 대명사형성 조작어는 A가 사용하는 대상언어의 표현인 ‘탕구르’와 B가 사용하는 메타언어의 표현인 ‘장티푸스’ 사이에 대용어적 의존이라는 단어-단어 관

계를 표현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칭관계에 호소함이 없이 대응어 메커니즘에 의해 (11)과 같은 메타언어 진술을 잘 이해할 수 있다.³⁾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응어적 간접 기술어구는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응어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응어는 대응어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선행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되거나 또는 대상언어의 표현을 화자가 사용하는 메타언어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어떤 사람 S가 ‘떡갈나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사무엘 클레멘스이다’라고 발화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발화를 듣고 A가 ‘사무엘 클레멘스가 누구야?’라고 B에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A가 《툼소 여의 모험》의 애독자라면,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고 지칭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과 동일인이므로 B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12)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고 지칭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다.
(The one S referred to as ‘Samuel Clemens’ is Mark Twain.)

이와 같은 대답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A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B는 S가 사용한 이름 ‘사무엘 클레멘스’를 언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고 지칭한 사람’이라는 간접 기술어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간접 기술어구는 ‘사무엘 클레멘스’를 선행어로 갖는,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응어이다. 그리고 A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B는 ‘사무엘 클레멘스’의 담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B는 A가 이해하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12)와 같은 문장

³⁾ Cf. Brandom 2005b, p. 280.

이 하는 기능은 S가 사용한 이름과 A가 이해하는 이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논의했던 대상을 A가 이해하는 이름 ‘마크 트웨인’을 대신 사용함으로써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칭한다’는 언어적인 것들 사이의 대응어적 단어-단어 관계를 표현한다.

위 논점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진리 도식(truth schema)의 사례를 살펴보자.

- (13) ‘지구는 둥글다’는 참이다 ↔ 지구는 둥글다.⁴⁾ (‘The earth is round’ is true if and only if the earth is round.)

한 진술과 이에 대응하는 세계사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세계사실을 개별화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13)의 경우처럼 쌍조건문 우항에 한 특정한 세계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 진술과 이에 대응하는 세계사실 사이의 관계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사실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13)의 경우처럼 언급된 문장과 사용된 문장 사이의 문장-문장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이름과 그 이름의 담지자 사이의 지칭관계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 대상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12)의 경우처럼 언급된 이름과 사용된 이름 사이의 단어-단어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제 다음 문장을 다시 고려해 보자.

- (6) ‘마크 트웨인’은 마크 트웨인을 지칭한다. (‘Mark Twain’ refers to Mark Twain.)

4) ‘↔’는 필요충분조건을 나타내는 쌍조건문 기호이다.

(6)은 어떤 의미에서 별로 흥미롭지 못한, 즉 사소하게 참인 주장이다. 그러나 지칭의 표상적 견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칭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사이의 실질적 관계라면, (6)은 결코 그렇게 사소하게 참인 주장일 수 없다. 그러나 (6)을 다음과 같이 환언(煥言, paraphrase)하면, 왜 이것이 사소하게 참인 주장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 (14) S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다.
(The one S referred to as ‘Mark Twain’ is Mark Twain.)

S가 사용한 이름 ‘마크 트웨인’이 우리가 잘 아는 친근한 이름인 경우에 우리는 굳이 ‘마크 트웨인이 누구야?’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4)와 같은 언명은 실용적으로 불필요하다. 물론 (14)에 포함된 간접 기술어구 ‘S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지칭한 사람’의 선행어 ‘마크 트웨인’과 (14)에서 사용된 이름 ‘마크 트웨인’이 같은 이름의 두 사례들이라는 우연적 조건이 성립해야 (14)는 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14)는 사소하게 참인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 우연적 조건이 성립하는 한에서 (14)의 참은 다음의 사소한 동일성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 (15) 마크 트웨인 = 마크 트웨인.

이런 의미에서 (14)는 별로 흥미롭지 못한, 즉 사소하게 참인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지칭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사이의 실질적 관계라면 (6)의 참은 결코 (15)와 같은 동일성 주장으로 이해될 수 없다. 동일성 관계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2)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와 같이 어휘적으로 단순한 대명사는 게으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와 같이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용어는 주로 대용어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선행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나 또는 대상언어의 표현을 화자가 사용하는 메타언어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14)의 경우처럼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일종의 게으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반면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는 양화적 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16) 독일인들이 ‘rot’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빨간 것들이다. (The ones Germans refer to as ‘rot’ are red things.)

독일인들이 ‘rot’라는 술어를 적용하는 대상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rot”라고 지칭하는 것들’이라는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에서 ‘지칭한다’라는 표현은 제거할 수 없는 표현적 역할(an ineliminable expressive role)을 수행한다.

2. 보베의 비판

보베(Båve 2009)는 지칭의 대용어 이론에 대해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한다. 그의 첫 번째 비판은 대용어 이론의 문법적 분석에 관한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던 예를 다시 살펴보자. 조는 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4) 정비공 빈클리가 내 차를 고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머

저리가 밸브를 잘못 맞춰놨거든.

그런데 이후에 짐은 조가 사용한 이름을 잊어버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 (5) 자동차 수리를 할 때 ‘그 머저리’라고 조가 지칭한 정비공한테 절대 가지마.

브랜덤에 따르면 (5)에서 대응어적 간접 기술어구 ‘조가 “그 머저리”라고 지칭한 정비공’의 선행어는 (4)에서 조가 사용한 표현 ‘그 머저리’이다. 또한 이 간접 기술어구 속에서 사용된 ‘지칭한다’라는 표현은 ‘그 머저리’를 선행어로 하는 대응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 즉 대명사형성 조작어이다. 그렇다면 (u)와 같은 일상적인 기술어구와 (t)와 같은 대응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u) 조가 머저리에 관한 그의 언급을 통해 놀라게 한(모욕한, 귀를 멍멍하게 한) 사람 (the one Joe startled (insulted, deafened) by his remarks about airheads)
- (t) 조가 ‘그 머저리’라고 지칭한 정비공(the mechanic Joe referred to as ‘that airhead’)

브랜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특정한 사례(token)에 의해 지칭됨과 그것에 의해 놀라고, 모욕당하고 또는 귀가 멍멍하게 됨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대명사형성 조작어들의 반복가능성(iterability)이다. ‘...는 ...에 대응어적으로 의존한다’의 관계는 이행적(transitive)이기 때문에 한 용어의 사례를

취해 그것에 대응어적으로 의존하는 표현을 산출하는 조작어는 초래되는 지칭(resulting reference)의 변화 없이 반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Brandom 1994, p. 313)

이에 대해 보베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표현을 반복한 것이 그 원래 표현과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t가 지칭하는 것’(What t refers to)의 반복은 “‘t가 지칭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What ‘what t refers to’ refers to)이다. 그러나 비록 브랜덤이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들’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는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들이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사실상 ‘지칭한다’를 이항술어로 간주하고 “‘a’는 a를 지칭한다’의 논란거리가 아닌 사례들을 인가해주는 그 어떤 지칭이론도 이 대체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논증을 논박한다. … 주장하는 바가 단지 그와 같은 환언들이 동등하다는 것이라면, [브랜덤의] 이론은 목표 문장들의 의미론적 기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 설명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환언들은 더 강한 주장, 예컨대 그 환언들이 그 목표 문장들의 논리적 형식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Båve 2009, p. 60)

브랜덤이 지적하는 것처럼, ‘…는 …에 대응어적으로 의존한다’의 관계는 이행적이기 때문에 한 용어의 사례를 취해 그것에 대응어적으로 의존하는 표현을 산출하는 조작어는 초래되는 지칭의 변화 없이 반복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u)와 같은 일상적 기술어구와 달리, (t)와 같은 간접 기술어구는 대응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가능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가능성 조건은 일상적 기술어구와 간접 기술어구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보베는 “‘a’는 a를 지칭한다’의 사례들을 승인하는 어떤 지칭이론도 반복가능성 조건을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간접 기술어구들이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한다는 주장의 근거

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위 비판은 대용어 이론에 큰 문제거리가 아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표현이 반복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그 표현이 대용어임을 함축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다.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가 반복가능성 조건을 충족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용어로 사용된 때문이지, 이것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용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t)가 조가 발화한 문장 (4) 속에서 사용된 ‘그 머저리’라는 표현의 대용어인 이유는 짐이 (t)를 그 표현의 대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들은 일반적 기술어구들과 구분되는가?

지칭의 대용어 이론은 추론주의 의미론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그리고 추론주의 의미론은 의미사용이론의 한 버전이다. 따라서 간접 기술어구들과 일반적 기술어구들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자의 사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2)에서 사용된 ‘그녀’가 대용어인 이유는 이것이 ‘페리’ 대신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2)에서 사용된 간접기술어구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고 지칭한 사람’이 대용어인 이유는 이것이 S가 사용한 선행어 ‘사무엘 클레멘스’ 대신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와 같은 대명사들이 고유명사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들이 대용어로 사용되는 어휘적으로 단순한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간접 기술어구들이 일반적 기술어구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들이 대용어로 사용되는 어휘적으로 복잡한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행어를 갖지 않는 고유명사들과 선행어를 갖는 대명사들은 서로 구분된다. 마찬가지로 선행어를 갖지 않는 일반적 기술어구들과 선행어를 갖는 간접 기술어구들은 서로 구분된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때때로 장소 또는 화자의 주의력의 차원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선행어를 대응어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대상 언어의 표현을 화자가 사용하는 메타언어의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베의 비판과 달리 간접 기술어구들이 단지 반복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간접 기술어구들은 대응어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기술어구들과 구분된다.

보베의 두 번째 비판은 대응어 이론의 의미론적 분석에 관한 것이다. 보베에 따르면 ‘그’와 같은 대명사를 포함한 문장과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은 대응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포함한 문장은 양상적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의 두 조건문들을 고려해보자.

- (17) 라이프니츠가 F라면, 그는 F이다. (If Leibniz is F, then he is F.)
- (18)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은 라이프니츠이다. (The one referred to as ‘Leibniz’ is Leibniz.)

보베(pp. 60-61)에 따르면 (17)은 필연적이면서 선행적인(*a priori*) 문장이다. 반면 (18)은 그렇지 않다.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이 라이프니츠가 아닌 가능세계 w 에서 (18)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대명사와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은 대응어적 간접 기술어구 사이에 적절한 유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간접 기술어구들이 ‘그’와 같은 전형적인 대응어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베는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판도 대응어 이론에 큰 문젯거리가 아니다. 브랜덤

(2005a, p. 245)이 강조하듯이, “대응어 관계는 사례들(tokenings)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17)이 필연적이면서 선행적인 문장이기 위해서는 후건에 있는 대명사 ‘그’가 전건에 있는 이름 ‘라이프니츠’의 대응어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후건에 있는 대명사 ‘그’의 의미론적 내용이 전건에 있는 고유명사 ‘라이프니츠’의 의미론적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 물론 이 조건은 통상적인 맥락에서 성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조건은 우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후건의 ‘그’와 대응어적 의존관계에 있는 선행어가 전건에 있는 ‘라이프니츠’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라이프니츠와 뉴턴(Isaac Newton)의 천재성에 관해 어떤 사람 S가 그의 동료와 논쟁을 하는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S가 뉴턴이 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왜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인지를 설명하면서 계속 뉴턴을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대응어적으로 지칭하는 맥락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S는 ‘라이프니츠가 천재라면, 그도 천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건의 ‘그’의 선행어는 ‘라이프니츠’가 아니라 ‘뉴턴’이다. 이 논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9) ‘김대중’은 김대중을 지칭한다. (‘DJ’ refers to DJ.)

통상적인 맥락에서 문장 (19)는 사소하게 참이다. 그러나 (19)에서 언급된 이름의 선행어가 조선일보의 한 특정한 우파 논설주간의 이름으로 사용된 사례이고, (19)에서 사용된 이름이 제15대 한국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용된 사례라면 (19)는 거짓이다. 다시 말해 어떤 맥락에서 “‘김대중’은 김대중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19)가 참이기 위해서 언급된 이름의 선행어

와 사용된 이름이 같은 이름의 두 사례들이라는 우연적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19)는 필연적이면서 선행적인 문장이 아닌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17)도 필연적이면서 선행적인 문장이 아닌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17)이 필연적이면서 선행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17)의 한 특정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18)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의 선행어 ‘라이프니츠’와 (18)에서 사용된 이름 ‘라이프니츠’가 동일한 이름의 두 사례들이면 (18)은 필연적인 문장이다. 즉 (18)은 다음 문장과 다를 바 없다.

(18') 라이프니츠 = 라이프니츠.

물론 현실세계가 아닌 가능세계 w 에서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이 현실세계의 라이프니츠가 아닌 경우에 w 에서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의 선행어와 (18)에서 사용된 이름 ‘라이프니츠’는 같은 이름의 두 사례들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베(Båve 2009, p. 61)는 “현실세계에서 사용된 대응어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그것의 선행어로 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통세계적 교차 지칭(this cross-world cross-reference)이 가능함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자연언어의 전형적인 대응어들은 이렇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예를 제시한다.

(20) 현실세계가 아닌 가능세계 w 에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남자였다. (In non-actual world w , Plato did not become a philosopher, but he was still a man.)

이 예에서 대명사 ‘그’의 선행어는 여전히 현실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전형적인 대응어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사례들을 교차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지칭한다’는 전형적인 대응어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20)에서 고유명사 ‘플라톤’이 언급되는 대신에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21) 비현실세계 w 에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많은 전공을 세울 것이다. (If there is a man called ‘Napoleon’ in non-actual world w , then he will distinguish himself in war.)

위 예에서 ‘그’의 선행어는 현실적인 사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간접 기술어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18') 비현실세계 w 에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이 있다면, w 에서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은 라이프니츠가 아니다. (If there is a man referred to as ‘Leibniz’ in non-actual world w , then the one referred to as ‘Leibniz’ in w is not Leibniz.)

위에서 지적한 이유들에 따라 (17)과 (18)의 양상적 위상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보베의 두 번째 비판은 대응어 관계가 사례들 사이의 관계임을 주목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다.⁵⁾

5)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하였다. 지칭의 대응어 이론에 따르면 지칭은 언어적인 것들 사이의 대응어적 의존관계이지 결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대상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끝으로 보베(pp. 61-62)에 따르면 대용어 이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형적인 대용어들과의 비교가 설명적으로 공허(explanatorily idle)하다는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a’ 형태의 표현들과 이에 대응하는 ““a”에 의해 지칭되는 것’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지칭한다’를 포함하는 여타 형태의 문장들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 어구를 포함하는 기본형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런데 보베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굳이 ‘대용어’, ‘선행어’ 등과 같은 표현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동등함’(equivalence), ‘대체가능성’(intersubstitutability) 등과 같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론적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어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 설명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두 문장들이 의미론적으로 동등하고 따라서 대체가능하다면, 왜 그 두 문장들이 의미론적으로 동등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용어 이론은 그러한 설명을 제시해주는 이론이다. 예컨대 다음의 두 문장들이 의미론적으로 동

한 말(言)이 또 다른 말을 가리키는 관계가 출구 없이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세계와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비판은 지칭의 대용어 이론이 추론주의 의미론(Inferential Semantics)에 기반을 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12)에서 사용된 간접 기술어구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고 지칭한 사람’과 이것의 선행어 ‘사무엘 클레멘스’ 사이에는 대용어적 의존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전자는 대용어로서 후자의 의미를 계승한다. 그렇다면 선행어 ‘사무엘 클레멘스’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의 의미는 이것과 관련된 세 가지 종류의 언어규칙들, 즉 언어-진입 규칙들(language-entry rules), 언어-언어 규칙들(language-language rules), 그리고 언어-이탈 규칙들(language-exit rules)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이 중 언어-진입 규칙들은 어떤 비언어적 상황에서 어떤 언어적 반응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규정해주는 규칙들이고, 언어-이탈 규칙들은 어떤 언어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주는 규칙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언어규칙들에 의해서 언어표현의 의미는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언어규칙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05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등하고 따라서 대체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22) 김대중은 제15대 한국대통령이다.

(23) 그는 제15대 한국대통령이다.

대용어 이론에 따르면 그 이유는 (23)에 있는 ‘그’가 (22)에 포함된 고유명사 ‘김대중’의 대용어로 사용된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이제 (22)와 (24)가 대체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24) ‘김대중’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제15대 한국대통령이다.

대용어 이론에 따르면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김대중’이라고 지칭된 사람’이 (22)에 포함된 고유명사 ‘김대중’의 대용어로 사용된 간접 기술어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론적 동등성, 대체가능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설명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용어 이론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용어 이론이 설명적으로 공허한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여러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대용어 이론의 토대가 되는 대용어 메커니즘이 실제로 의미론의 일부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접 기술어구들이 실제로 대용어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브랜덤은 의미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서 추론주의 의미론을 제시한다. 그의 추론주의 의미론에 의하면 대용어 관계는 언어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매우 유용한 언어 메커니즘이다. 예컨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논의하던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누군지 몰라도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그에 관한 주장을 이어 갈 수 있다.⁶⁾ 마찬가지로 앞 절에서 언급했던 바

와 같이 우리는 대용어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선행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선행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간접 기술어구를 대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어휘적으로 단순한 대용어들과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용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논의하는 사람을 잘 몰라도 ‘그’라는 대명사를 이용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논의했던 (5)의 경우처럼 앞서 언급했던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머저리’라고 조가 지칭한 정비공’과 같은 간접 기술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앞서 언급했던 사람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용어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선행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선행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간접 기술어구를 대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언어학적 사실이다. 요컨대 대용어 메커니즘은 우리 언어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유용한 언어 메커니즘이다.

이제 브랜드의 주장대로 우리의 의미론 속에 대용어 메커니즘이 있고, 어휘적으로 단순한 대명사들과 어휘적으로 복잡한 간접 기술어구들이 둘 다 대용어 메커니즘에 의해 의미론적 내용이 결정되는 대용어들의 일종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녀’가 한 특정한 여성의 고유명사인 ‘메리’의 대용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 다음 ‘그녀는 간호사이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경우 ‘메리는 간호사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이 주어져 있으면 ‘그녀는 간호사이다’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미론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용어 메커니즘에 의해 양자는 같은 의미론적 내용을 갖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2)의 의미론적 내용이 주어져 있고, 또한 (24)에 포함된 간접 기술어구 “‘김대중’이라고 지칭된 사람’이 (22)에 있는 고유명사 ‘김대중’

6) Cf. Brandom 1994, p. 486.

을 선행어로 갖는 대응어라면 (24)의 의미론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미론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어떤 대응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대응어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언어 메커니즘이 주어지면, 이를 통해 ‘그녀’와 같이 어휘적으로 단순한 대응어들이든 “‘김대중’이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이 어휘적으로 복잡한 대응어들이든 이것들의 의미론적 내용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다음 사례들과 관련된 논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12) S가 ‘사무엘 클레멘스’라고 지칭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다.
(The one S referred to as ‘Samuel Clemens’ is Mark Twain.)
- (13) ‘지구는 둥글다’는 참이다 ↔ 지구는 둥글다. (‘The earth is round’ is true if and only if the earth is round.)

한 진술과 이에 대응하는 세계사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세계사실을 개별화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 진술과 이에 대응하는 세계사실 사이의 관계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사실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13)의 경우처럼 언급된 문장과 사용된 문장 사이의 문장-문장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이름과 그 이름의 담지자 사이의 지칭관계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 대상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12)의 경우처럼 언급된 이름과 사용된 이름 사이의 단어-단어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대응어 이론이 경쟁이론들에 비해 설명력 및 난점의 측면에서 어떠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칭의

표상적 견해에 따르면 지칭은 한 언어표현과 한 비언어적 대상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실질적 관계를 표현한다. 그런데 한 언어표현과 한 비언어적 대상 사이에 과연 이와 같은 실질적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용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지칭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칭의 대용어 이론이 설명적으로 공허한 이론이라는 보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칭의 대용어 이론에 대한 보베의 비판들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논거들이 적절하다면, 그의 비판들은 대용어 이론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칭의 대용어 이론이 주장하는 바대로 지칭을 단어와 비언어적 대상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대용어적 메커니즘, 즉 대용어적 단어-단어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병덕 (2005), “추론주의는 포도와 르포어의 비판들을 피할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제12호, pp. 47-76.
- Båve, Arvid (2009), “A Deflationary Theory of Reference”, *Synthese* 169, pp. 51-73.
- Brandom, Robert (1994), *Making It Explici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andom, Robert (2005a), “Expressive versus Explanatory Deflationism about Truth”, in Bradley P. Armour-Garb and JC Beall (eds.), *Deflationary Truth*, Chicago and La Salle: Open Court, pp. 237-257.
- Brandom, Robert (2005b), “Reference Explained Away: Anaphoric Reference and Indirect Description”, in Bradley P. Armour-Garb and JC Beall (eds.), *Deflationary Truth*, Chicago and La Salle: Open Court, pp. 258-281.
- Grover, Dorothy L., Joseph L. Camp, Jr., and Nuel D. Belnap, Jr. (1975), “A Prosentential Theory of Truth”, *Philosophical Studies* 27, pp. 73-125.
- Quine, W. V. O.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IT Press.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bydlee@skku.edu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and Objections Against It

Byeongdeok Lee

Brandom upholds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On this theory, reference is a relation of anaphoric dependence between linguistic items rather than a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linguistic items and non-linguistic objects. In addition, ‘refers’ is a pronoun-forming operator, which is used to form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s such as ‘the one referred to as “Leibniz”’. Recently, Arvid Båve raises three objections against this theory. First, the anaphoric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ordinary descriptions and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s in terms of iterability. But this condition is not an adequate ground for asserting that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s form a distinctive semantic category. Second, sentences containing a pronoun such as ‘he’ and sentences containing an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 such as ‘the one referred to as “Leibniz”’ have different modal statuses. Consequently, indirect descriptions are semantically different from paradigmatic anaphors. Third, on the anaphoric theory, expressions of the form ‘a’ and the corresponding indirect descriptions of the form ‘the one referred to as “a”’ are intersubstitutable. But we can make an equivalent claim by using the more general semantic concepts such as equivalence and

intersubstitutability, instead of using notions such as ‘anaphor’ and ‘antecedent’. So the anaphoric theory is explanatorily idle.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objections do not pose a serious problem for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I argue thereby that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is a promising theory which provides us with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refers’.

Key Words: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Pronoun-forming operator,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 Brandom, Båve